

- 주요 뉴스: 9월 FOMC, 0.75%p 인상. 물가안정 목표 달성 시까지 통화긴축 지속할 방침
 - 미국 8월 기존주택 판매, 7개월 연속 감소. 모기지 금리 상승 등으로 매수세 약화
 - ECB 부총재, 경기침체만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는 어려울 가능성. 금리인상 필요
 - 중국 인민은행, 향후 추가 완화 조치 가능하다는 신호 발신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7%], 달러화 강세[+1.0%],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등으로 투자심리 약화
 유로 Stoxx600지수는 유틸리티 관련주 강세 등으로 0.9%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 지속 의지 등으로 매수세 강화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1.3%,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둔화 우려 등이 영향
 독일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3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396.3원, +2.1원) 0.2% 상승, 한국 CDS 상승

		9/21일	9/20일	전일대비			9/21일	9/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789.9	3,855.9	-1.71%	국채 금리 10y	미국	3.53%	3.56%	-3bp
	유럽	407.05	403.42	0.90%		독일	1.89%	1.93%	-3bp
	중국	3,117.2	3,122.4	-0.17%	CDS 5y	한국	40bp	38bp	2bp
	일본	27,313	27,688	-1.36%		중국	91bp	86bp	5bp
	한국	2,347.2	2,367.9	-0.87%	위험 지표	EMBI+	-	433	-
환율	달러지수	111.34	110.22	1.02%		VIX	27.99	27.16	3.06%
	유로화	0.9837	0.9971	-1.34%		WTI유	82.94	84.45	-1.79%
	엔화	144.06	143.75	-0.22%	원자재	구리	351.2	354.8	-1.01%
	위안화	7.0502	7.0183	-0.45%		금	1,673.9	1,664.9	0.54%
	원화	1,394.2	1,389.5	-0.3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9월 FOMC, 0.75%p 인상. 물가안정 목표 달성 시까지 통화긴축 지속할 방침

- 성명서를 통해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3회 연속 0.75%p 높이며 3.00~3.25%로 제시. 이번 결정은 모든 위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연방기금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표
- 개별 위원들의 예상을 종합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목표는 연말에 4.4%에 이르고, 내년에는 4.6%까지 상승하면서 정점을 기록할 전망. 다만 이후 '24, '25년에는 각각 3.9%, 2.9%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
- 한편 금년 및 내년의 실업률 전망은 상향 조정(각각 3.7%→3.8%, 3.9%→4.4%)한 반면, 성장률 전망은 하향(각각 1.7%→0.2%, 1.7%→1.2%). PCE 물가상승률 전망은 이전보다 높여서 제시(각각 5.2%→5.4%, 2.6%→2.8%)
- 파월 의장은 상당 기간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과 고용 증가를 저해하여 일반 국민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발언. 경기침체 회피가 가능하지만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통화긴축을 멈출 것이라고 첨언
- 성명서 발표 직후 주가는 일시 상승했으나, 파월 의장의 회견 이후 위험자산 선호 약화로 하락(S&P500: 3,789.9 -1.7%). 국채 2년물 금리는 상승했으나(2Y: 4.05% +8bp), 10년물 금리는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10Y: 3.53%, -3bp)
- 연준은 과감한 통화긴축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켰고(Bankrate의 Greg McBride), 매파적 메시지를 반복하여 비둘기파적 신호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제거(TCW의 Bryan Whalen). 경계해야 할 것은 내년 연방기금금리 목표가 최근 시장에서 추정한 4.5%를 상회할 수 있다는 사실(Bloomberg의 Anna Wong)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8월 기존주택 판매, 7개월 연속 감소. 모기지 금리 상승 등으로 매수세 약화

- 해당 건수는 연환산 480만건을 기록하여 전월(482만건) 대비 줄었고, 이는 '20년 7월 이후 최저. 주택가격은 연준의 금리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주택 구매력 약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Nationawide의 Daniel Vielhaber)

■ ECB 부총재, 경기침체만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는 어려울 가능성. 금리인상 필요

- 데 쿤도스 부총재는 금년 겨울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능하지는 않기에 금리인상 등의 통화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향후 경기는 하방 압력이 높다고 진단

■ 유럽 상공회의소, 투자처로서 중국의 매력 감소

-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정치적 목표를 경제적 목표보다 우위에 두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훼손한다고 평가. 또한 최근 중국의 정책 결정들은 예측 가능성, 효율성 등에서 취약하다고 지적

■ 미국, 러시아의 러시아 침공을 비난. 러시아는 전쟁 의지를 재확인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기본 이념에 어긋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은 무책임하다고 비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협박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

■ 중국 인민은행, 향후 추가 완화 조치 가능하다는 신호 발신

- 현행 금리는 적정 수준이며, 이는 향후 정책결정 관련하여 운신의 폭을 넓힌다고 평가. 또한 실질금리는 잠재적 경제 성장을 고려 시 다소 낮아 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여 당국의 추가적인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부연

■ 아시아개발은행(ADB), 금리상승 등으로 아시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 금년 및 내년의 역내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각각 4.6%→4.3%, 5.3%→4.9%),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상승이 수요둔화 및 금융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 또한 라우 전쟁과 중국 경기 둔화 등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

■ 호주 중앙은행,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산매입이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

- 해당 기간에 30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고, 이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보유 채권의 가격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지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22 현지시각 기준)

- 영란은행 및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미국 9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경기침체 회피 의지, 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The Fed Should Be Willing to Cause a Recession)

- 연준은 경기침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이는 행운이 필요하며,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한 대책은 결국 실업률 상승과 생산량 감소를 수반. 이를 부인하고 완만한 형태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선다면 향후에 고용과 생산 관련하여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소지
- 미국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보다 낮은 반면, 노동수요는 높아 임금상승이 지속. 비록 소득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지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임금상승률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연준은 수용할 필요

■ 미국 장기 국채금리 전망, 3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 - Financial Times

(Learning to love the long end)

- 첫째, 수요우위의 노동시장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정책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며, 이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유도. 다만 양적긴축에 따른 유동성 감소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악화시키며 장기 국채 수요를 늘릴 가능성
- 둘째, 물가상승 둔화 시 연준은 소폭의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6,7월의 경우처럼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세 중단 및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 전망.
- 셋째, 과도한 통화긴축으로 경기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연준의 완화정책 시행 시기는 빨라지면서 장기 국채금리의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

■ 미국 해상 운임료, 수요 둔화에 따른 하락으로 고물가 완화에 기여할 소지 - 블룸버그

(Freight Costs Fueled Inflation. Can They Dampen It Now?)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군사동원령 및 핵위협, 국내 좁아진 입지를 반영 - Financial Times

(Why Vladimir Putin is raising the stakes in Ukraine war)

■ 유럽의 에너지 비용 지원, 공공재원 부족으로 지속 여부는 불투명 - Financial Times

(EU at pains to even out support with energy bill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